

광주시-중국 저장성, 경제 교류협력 강화한다

대표단, 한중일기업가포럼 참석
글로벌정상기교류연맹과 협약
국제사무소 광주 설립 등 추진
하반기 민간간교류단 방문 합의



이상갑 광주시문화경제부시장은 지난 10일 중국 항저우시 글로벌정상기교류협력연맹 사무실에서 판용창 연맹 집행주석과 '글로벌정상기교류협력연맹'과 협력 협약을 체결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광주시 제공**

광주시가 중국 저장성과 경제교류협력 강화에 나섰다.

11일 광주시에 따르면 이상갑 문화경제부시장을 단장으로 한 광주시 대표단이 지난 8일부터 10일까지 사흘간 중국 저장성에서 한·중 교류협력과 기업투자 및 관광 유망 분야를 펼쳤다.

대표단은 중국 저장성 이우시에서 열린 '2024 한·중·일 기업가 포럼'에 참석하고, '글로벌정상기교류협력연맹'과 협력 협약을 체결, 알리바바그룹 시찰 등 경제 교류협력 강화에 나섰다.

대표단은 먼저 지난 9일 중국 저장성 정부 초청으로 한·중·일협력사무국(TCS)이 주최한 '2024 한·중·일 기업가 포럼' 개막식에 참석했다. 이는 광주시-저장성 간 우호관계 강화발전을 위한 협의를 통해 이뤄졌다.

이 부시장은 개막식 축사에 이어 저장성인민정부 런쎬펑 부비서장과 푸젠신외

사판공실 주임, 동평명 중국 외교부 아시아부국장, 다케나카 케이이치 주상하이 일본 부총영사 등을 만나 인공지능(AI) 및 자동차 산업 교류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대표단은 이어 저장성정부 초청으로 공산품도매시장인 푸톈시장을 찾아 국제운송 네트워크와 광주-저장성 간 무역 활성

화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푸톈시장은 여의도 절반 크기인 연면적 400만평 규모의 세계 최대 공산품도매시장으로, 한국인들도 자주 찾는 물류 거점이다.

대표단은 또 중국 대표 IT그룹 중 하나인 알리바바그룹 항저우 본사를 방문, 그룹 관계자의 안내를 받으며 시찰하고, 광주 기업들과 협업사업 등 연계 방안을 모

색했다.

이 부시장 등 대표단은 10일 항저우에서 '글로벌정상기교류협력연맹'과 협력 협약을 체결했다.

이 연맹은 2019년 이탈리아 로마에서 설립한 글로벌 단체로, 유럽·미국·중화권 등 세계 50여만명의 상공인·기업가 등을 회원으로 두고 있다. 정부·기업가 등을 대

상으로 비즈니스·네트워크 지원, 매칭 서비스 등의 업무를 하고 있다.

광주시는 지난 2022년 8월 강기정 시장과 판용창 연맹 주석이 영상회의를 통해 교류협력을 논의했으며, 이번 협약은 그 후속 조치다.

협약에 따라 두 기관은 공동 번영을 위해 전략적 협력관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정기적 상호 교류 및 연내 연맹의 광주 방문 △인공지능·자동차·신재생에너지산업 등 교류활동 및 정기적 프로젝트 협력 세미나 개최 △연내 연맹 한국 국제사무소(센터) 광주 설립 등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두 기관은 올 하반기 100명 이상 규모의 민간교류단 광주 방문을 추진하기로 합의했으며, 향후 글로벌 기업 투자 및 관광 유망 분야 등으로 이어지도록 실질적 교류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이 부시장은 "저장성 등 중국과 교류협력을 강화하고, 관광객 유치와 연계한 민간교류 활성화에도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며 "인공지능(AI) 집적단지, 미래차 국가산단,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복합쇼핑몰 등 광주의 자원을 세계화하는 데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노병하 기자 byeongha.no@jinilbo.com

광주시, 공동주택 햇빛발전소 지원사업 추진

광주시에 공동주택 발코니나 경비실 옥상에 소형태양광을 설치하는 '공동주택 햇빛발전소' 참여할 300세대를 모집한다.

11일 광주시에 따르면 '공동주택 햇빛발전소 보급지원 사업'은 공동주택 발코니와 경비실 옥상에서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소형(435W) 태양광발전시스템의 설치 보조금을 지원,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기여하고 가정의 에너지 비용을 절감하는 사업이다.

광주시에 지난 2015년부터 2023년까지 총 4767세대 29억원을 지원해 온실가스 배출 저감과 냉·난방비 절감효과 등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는 효과를 얻고 있다.

소형 태양광발전시스템은 냉장고 900리터 1대가 소비(약46kwh/월)하는 전기를 생산, 월 약 8140원의 전기요금 절감효과를 얻을 수 있다.

광주시에 올해도 시비 2억원을 투입해 소형(435W)태양광 설치를 희망하는 약 300여세대를 11월30일까지 선착순 모집

한다. 소형(435W) 태양광발전시스템 설치비는 총 90만원으로, 광주시는 63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하고 신청가구는 27만원을 부담하면 된다. 공동주택단지내 다수세대가 참여하면 세대당 최대 10만원까지 추가 혜택(인센티브)을 준다.

신청자격은 건축법상 지역 공동주택으로 발코니나 경비실 옥상에 소형태양광을 설치할 수 있는 장소를 보유하고 있으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관리사무소 등 관리주체의 설치동의를 받아야 한다.

참여신청은 광주시에 선정된 전문참여(시공)업체 보급제품 등을 확인 후 업체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광주시 누리집 고시·공고란에 게시된 '2024년 공동주택 햇빛발전소 보급지원사업참여세대모집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빛고을콜센터(120)로 문의하거나 기후대기정책과담당자(062-613-6232)에게 문의하면 된다. **노병하 기자**

전남도 의용소방대, 폭염 안전지킴이 '톡톡'

전남도 의용소방대가 기록적인 폭염이 지속되는 가운데 도민 안전지킴이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어 눈길을 끈다.

11일 전남소방본부에 따르면 올 들어 8일 현재까지 전남지역 온열질환자 출동은 170건이나 된다.

유형별로는 열사병 43명, 열탈진 82명, 열경련 30명, 열실신 15명 순이며, 연령별로 60대 이상이 52%(90명)를 차지했다. 또 출동 건수의 50.5%(86건)가 논과 밭, 도로 등 야외로, 고령자의 야외활동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전남의용소방대는 도내 각 시와 읍면에 일일 순찰조를 편성하고, 온열질환

발생에 대비해 음료 등을 갖춰 전달하는 등 안전지킴이 활동에 나섰다.

540개대 1만1000여의용소방대원들은 낮 12시부터 오후 4시까지 폭염 취약 시간에 마을을 순찰하며, 온열질환 환자 발생 시 신속 대응하고 야외 작업자의 귀가를 독려하고 있다. 경로당 등을 방문해 폭염 시 야외활동 자제 당부와 폭염 대처 교육도 추진한다.

오승훈 전남소방본부장은 "안전한 여름을 위해 폭염 관련 기상상황에 주목하고 특보 시 야외활동을 자제해야 한다"며 "온열질환은 신속한 조치가 중요한 만큼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1인 야외작업은 삼가 달라"고 말했다. **오지현 기자**

전남도, 지역산업육성사업 우수기관 선정

R&D 53건 등 68개 지원과제 성장사다리 등 특화기업 육성

전남도는 중소벤처기업부의 '2024년(2023년 실적) 지역산업육성사업' 성과 평가에서 성장사다리 지원, 시군 연고사업 등 지역 특화기업 육성 실적을 평가받아 우수기관에 선정됐다고 11일 밝혔다.

지역산업육성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와 비수도권 14개 시·도가 매년 지역산업진흥계획을 세우고, 지역 특화산업 분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코로나 확산세' 광주시-의·약사회, 선제 대응

광주시에 자치구 보건소, 약사회, 의사회 등과 긴밀히 협력해 제6차 유행 조짐을 보이고 있는 '코로나19 감염병'에 대해 선제 대응에 나섰다.

11일 광주시에 따르면 최근 질병관리청과 '코로나19 치료제 수급 관리'에 대한 온라인 회의를 하고, 자치구 보건소·약사회·의사회 등 유관기관과 협의를 통해 코로나19 확산 대응에 대해 논의했다.

코로나19 치료제 품귀 대책에 대해 광주시는 보건소·의료기관 간 채팅방을 구축, 실시간 재고 현황을 공유하는 등 소통하고 있다. 코로나19 치료제 처방·조제 기관은 광주광역시 누리집 또는 건강보험심

사평가원 홈페이지에 게시돼 있다. 광주시는 광주약사회와 협업해 코로나19 치료제 조제기관 목록을 공유하고, 약국간 소통으로 조제약 가능 여부를 확인, 시민들이 약을 찾아 헤매는 불편함을 줄일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대응에 대해 "확산 조짐이 보이고 있지만, 일반인들은 큰 걱정할 것은 아니라는 일본정부의 발표가 있었다"며 "중증·기저 질환자 등의 관리에 더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4주간 전국적으로 코로나19 환자가 급증하면서 광주지역도 입원환자가 대폭 증가하는 추세여서 각별한 주의가 요

구되는 상황이다. 200병상 이상 병원급 의료기관의 코로나19 표본감시 결과, 6월 4주 차 코로나19 입원환자 수는 4명이었으나 7월 5주 차에는 19명으로 4.8배 급증했다. 비율로는 63.2% 증가했다. 전국적으로도 6월 4주차 기준 63명에서 7월 4주차 465명으로 증가했다. 특히 질환자와 기저질환자는 치료제가 남발되지 않고 고위험군 대상에게 제대로 처방이 되도록 광주시의사회와 협력하고 있다. 의사는 코로나19 치료제 처방 의료기관에 처방기준 준수 안내를 다시 한 번 요청한 상태다. 처방기준은 △60세 이상 고령자 △12세 이상(팍스로비드) 또는 18세 이상(라게브리오) 면역저하자·기저질환자 △중증 입원환자(베를루주) 등이다. **노병하 기자**

광주시 "KIA 타이거즈 홈경기 이중언어 중계"

광주시와 GGN글로벌광주방송은 지난 9일 광주종합버스터미널 유스퀘어에서 KIA 타이거즈 홈경기 이중언어 중계 홍보활동을 벌였다.

11일 광주시에 따르면 GGN 글로벌광

주방송은 지난 6일 광주에서 열린 KIA 타이거즈와 KT 위즈의 야구경기를 시작으로, 올해 프로야구 정규시즌 남은 KIA 홈경기를 라디오와 유튜브를 통해 실시간으로 시민들에게 이중언어(한국어, 영

어)로 생생히 전달한다. 특히 미국, 캐나다 등에서 다양한 현지 경험을 쌓은 교포 출신 캐스터 제인슨 리와 사투리를 사용하는 야구인플루언서 박종근씨의 조합이 재미를 더하고 있다. 야구 중계 일정은 GGN 글로벌광주방송 누리집과 유튜브에서 확인할 수 있다. **노병하 기자**